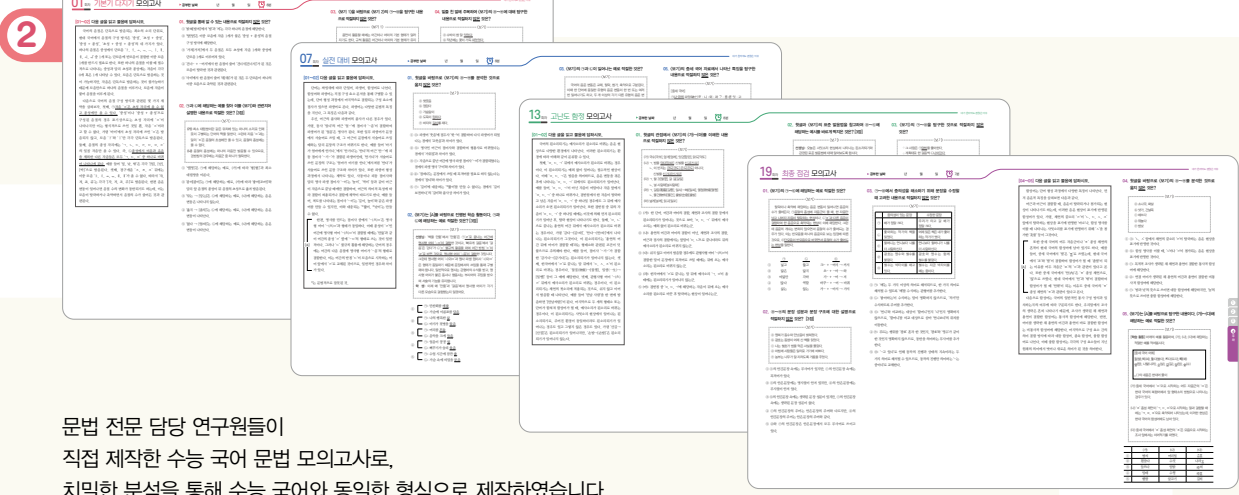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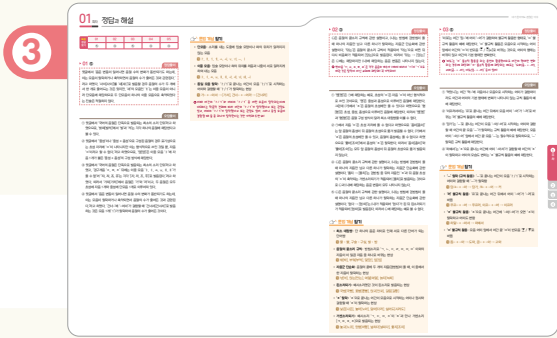


문법 모의고사 총 24회 (총 120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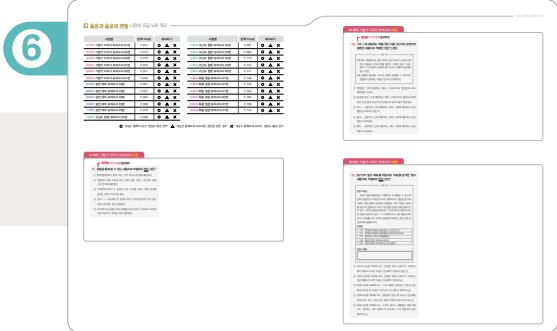
문법 전문 담당 연구원들이 직접 제작한 수능 국어 문법 모의고사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수능 국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LEVEL이 높아질수록 함정 요소가 많고 더욱 심화된 개념과 이론을 활용하여 만든 문제가 제공됩니다.

정답과 해설 & 문법 개념 담기



지문, 보기, 발문, 선지 등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법 개념들은 각 문항의 해설 아래에 있는 '문법 개념 담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문법 지식과 문제 풀이 TIP도 제공합니다.

나만의 오답 노트



문법 모의고사 24회의 모든 문제는 '문법노트 PLUS'에 단원별로 재분류하여 다시 한번 실어 두었습니다. **분책** '문법백제 PLUS'를 펼치고 **별책** '문법노트 PLUS'의 '나만의 오답 노트'에 틀렸거나 확신 없이 문 문제를 체크한 후 정리해 보세요.

How to use

Q

수능 국어의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에서 국어 문법(언어)이 나오는데, 수많은 문법 개념과 이론에 대한 공부가 부담스러워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망설여져요.

A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먼저 학습량이 많은 국어 문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암기해야 할 요소가 많아서 문법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을 테지만, 문법은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 즉 시험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오히려 수능 국어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죠.

Q

그렇다면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과목의 특성상 문법 개념과 이론을 먼저 학습하지 않은 채 문제 풀이부터 접근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아요. '문법백제 PLUS'를 시작하기 전에 국어 문법 필수 개념서인 '국어 문법 FAQ'로 기초를 다지는 것이 필요해요. 문법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익히고 각 문법 개념과 이론이 전체 체계 속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며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그 이후 '문법백제 PLUS'로 실전 문제 풀이와 오답 노트 정리를 한다면 수능 국어 문법(언어) 공부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거예요.

완벽한
수능 국어 문법
**학습
로드맵**

국어 문법
F A Q

문법백제
P L U S

문법 개념 학습하기

기출 문제로 훈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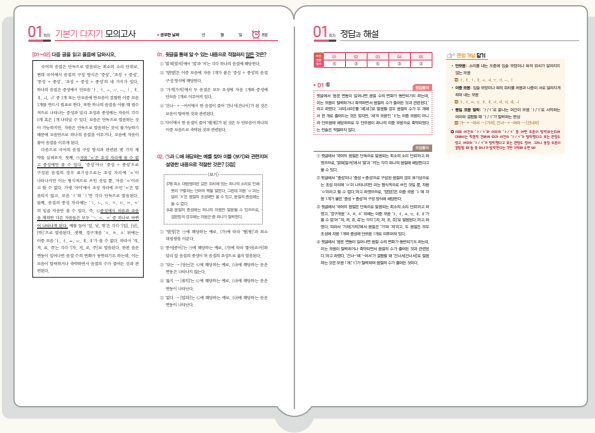
실전처럼 **목표 시간**을 재고 문제 풀기

문법 **개념 PLUS** 정리하기

문법 **노트 PLUS** 완성하기

반
복
하
기

그럼 지금부터 '문법백제 PLUS'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할게요!



ST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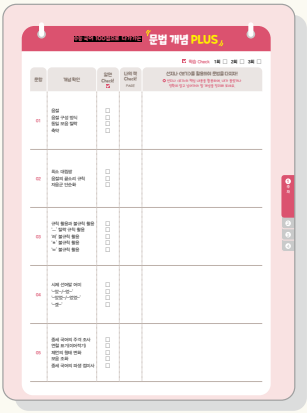
실전처럼 목표 시간을 재고 문제 풀기

오늘 공부할 모의고사의 문제 페이지를 펼친 후, 주어진 목표 시간을 확인하고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 보세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정답과 해설이 제시되어 있으니 문제를 풀고 해설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다룬 문법 개념이 정리된 '문법 개념 담기'를 통해 문법 개념을 한 번 더 공부해 보세요!

STE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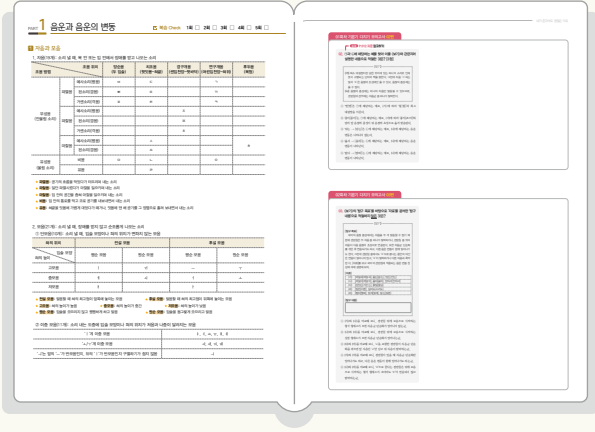
'문법 개념 PLUS' 정리하기

문제 풀이와 분석을 마쳤다면, 하루 학습의 마지막 코스인 '문법 개념 PLUS' 페이지를 펼치고 각 문제에서 사용한 개념을 체크해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법 개념서를 활용하여 문제에 쓰인 문법 개념과 이론을 정리하면 됩니다.



문항	개념 확인	알면 Che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나의 책 Check! PAGE	선지나 <보기>를 활용하여 문법을 다지자! 선지나 <보기>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여, 내가 몰랐거나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01 품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법 개념서 p.62	(보기 분석) - 관형사(관형어)는 명사를 꾸미는 단어예요 : 사해(사관형사) + 하(명사) / 유일(유관형사) + 일(명사) / 한일(한관형사) + 일(명사) - 단원의 구성 요소인 '의미상 목적어'와 '어휘적 관계'를 꼭 단원해요 : 사해(사관형사) + 하(명사) + 하(명사) : 유일(유관형사) + 일(명사) : 한일(한관형사) + 일(명사) (문법 개념서) 정리하기 - 품사별 문법 설명을 정확히 공부하기 (관형사는 문장 성분, 관형어는 품사) - 관형어와 실전 형태 살펴보기 ① 관형사 ② 하의 명사성 ③ 하의 명사성에 관하여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 ④ 문법적 의미와 관형어 의미의 결합 형태 ⑤ 실질적 주어와 관형어 의미의 결합 형태
문장 성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법 개념서 p.91	
관형사와 관형어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법 개념서 p.69-70	

★ 선지나 <보기>를 활용하여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개념을 위와 같이 정리해 보세요.



STEP 3

'문법노트 PLUS' 완성하기 (별책)

4주 동안 문법백제 모의고사 풀이와 '문법 개념 PLUS' 정리를 마쳤다면, 이제 '문법노트 PLUS'를 완성할 시간이에요! 단원별로 제시된 문법 핵심 정리를 보며 전체적인 국어 문법의 체계를 익히고,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나 헷갈렸던 문제를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나만의 오답 노트가 완성됩니다.

★ '문법노트 PLUS'는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별책으로 구성되었고, 모의고사의 120문제가 다시 한번 제공되니 편리하게 오답 노트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책 한 권을 끝내면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나만의 문법노트가 완성될 거예요.

Contents & Plan

문법백제 P L U S

1주차

LEVEL 1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요일	학습 내용	페이지	학습 체크		
			1회	2회	3회
월	01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P.01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	02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P.018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	03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P.02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목	04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P.03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금	05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P.036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토	06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P.04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주차

LEVEL 2 실전 대비 모의고사

요일	학습 내용	페이지	학습 체크		
			1회	2회	3회
월	07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P.05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	08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P.056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	09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P.06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목	10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P.068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금	11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P.07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토	12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P.08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주차

LEVEL 3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요일	학습 내용	페이지	학습 체크		
			1회	2회	3회
월	13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P.09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	14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P.098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	15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P.106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목	16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P.11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금	17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P.12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토	18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P.13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주차

LEVEL 4 회동 점검 모의고사

요일	학습 내용	페이지	학습 체크		
			1회	2회	3회
월	19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P.14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	20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P.146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	21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P.15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목	22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P.16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금	23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P.168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토	24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P.176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주차

별책 문법노트 PLUS

요일	학습 내용	페이지	학습 체크		
			1회	2회	3회
월	① 음운과 음운의 변동	P.00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	② 형태소와 단어	P.02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	③ 문장의 이해	P.04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목	④ 문법 요소	P.06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금	⑤ 의미 & 국어의 역사	P.07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W E E K

1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어의 음절은 단독으로 발음되는 최소의 소리 단위로, 현대 국어에서 음절의 구성 방식은 ‘중성’, ‘초성 + 중성’, ‘중성 + 종성’, ‘초성 + 중성 + 종성’의 네 가지가 있다. 하나의 음절은 중성에서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ㅟ, ㅠ, ㅢ, ㅤ, ㅥ’ 중 1개 또는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한 이중 모음 1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또한 하나의 음절을 이룰 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중성과 달리 초성과 종성에는 자음이 각각 0개 혹은 1개 나타날 수 있다. 모음은 단독으로 발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음은 단독으로 발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음만으로 하나의 음절을 이루거나, 모음에 자음이 붙어 음절을 이루게 된다.

다음으로 국어의 음절 구성 방식과 관련된 몇 가지 제약을 살펴보자. 첫째, ㉠자음 ‘ㅇ’은 초성 자리에 올 수 없고 종성에만 올 수 있다. ‘중성’이나 ‘중성 + 종성’으로 구성된 음절의 경우 표기상으로는 초성 자리에 ‘ㅇ’이 나타나지만 이는 형식적으로 쓰인 것일 뿐, 자음 ‘ㅇ’이라고 할 수 없다. 가령 ‘아이’에서 초성 자리에 쓰인 ‘ㅇ’은 발음되지 않고, 모음 ‘ㅏ’와 ‘ㅣ’만 각각 단독으로 발음된다. 둘째, 음절의 종성 자리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자음만 올 수 있다. 즉, ㉡중성에서 비음과 유음을 제외한 다른 자음들은 모두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잎, 낫, 뱀’은 각각 [입], [낫], [뱀]으로 발음된다. 셋째, 경구개음 ‘ㅈ, ㅉ, ㅊ’ 뒤에는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가 올 수 없다. 따라서 ‘자, 저, 쪼, 쪼’는 각각 [자, 저, 쪼, 쪼]로 발음된다. 한편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음절 수의 변화가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는 모음이 탈락하거나 축약하면서 음절의 수가 줄어든 것과 관련된다.

0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밝혀[발켜]’에서 ‘발’과 ‘켜’는 각각 하나의 음절에 해당한다.
- ② ‘영[영]’은 이중 모음에 자음 1개가 붙은 ‘중성 + 종성’의 음절 구성 방식에 해당한다.
- ③ ‘가져[가저]’에서 두 음절은 모두 초성에 자음 1개와 중성에 단모음 1개로 이루어져 있다.
- ④ ‘건너- + -어서’에서 한 음절이 줄어 ‘건너서[건너서]’가 된 것은 모음이 탈락한 것과 관련된다.
- ⑤ ‘사이’에서 한 음절이 줄어 ‘새[새]’가 된 것은 두 단모음이 하나의 이중 모음으로 축약된 것과 관련된다.

02. ㉠과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보기>와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가) 최소 대립쌍이란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한다. 그런데 자음 ‘ㅇ’과는 달리 ‘ㅎ’은 음절의 초성에만 올 수 있고, 음절의 종성에는 올 수 없다.

(나) 음절의 종성에는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으므로, 겹받침의 경우에는 자음군 중 하나가 탈락한다.

- ① ‘영[영]’은 ㉠에 해당하는 예로, (가)에 따라 ‘형[형]’과 최소 대립쌍을 이룬다.
- ② ‘종이[종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가)에 따라 ‘종아[조:아]’와 달리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발음된다.
- ③ ‘닭는 → [당느]’는 ㉡에 해당하는 예로,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옳지 → [올치]’는 ㉡에 해당하는 예로,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⑤ ‘없다 → [업:때]’는 ㉡에 해당하는 예로,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03.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용언이 활용할 때에는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규칙 활용은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거나, 어간이나 어미가 달라지더라도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보기 2>

㉠ 수호야, 오늘은 이침밥을 일찍 먹었니?
 ㉡ 집에 이르러서야 몸에 긴장이 풀렸다.
 ㉢ 우리 가족은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다.
 ㉣ 영희의 얼굴이 너무 하얗서 창백해 보였다.
 ㉤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친구가 미워 보였다.

- ① ㉠: '먹었니'는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변하지 않는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② ㉡: '이르러서야'는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어미의 기본 형태가 변화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③ ㉢: '담가'는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의 기본 형태가 변화하는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④ ㉣: '하얗서'는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변화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⑤ ㉤: '미워'는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변화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04.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수박이 참 잘 익었다.
 ㉡ 작년에는 꽃이 가득 피었었다.
 ㉢ 민수는 벌써 저녁을 다 먹었겠지?
 ㉣ 수호는 지금 빵을 먹는다. / 수호는 내일 여행을 떠난다.
 ㉤ 그는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 기차를 타는 그가 보였다.

- ①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었-'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을 때에도 쓰일 수 있군.
- ② ㉡를 보니, 선어말 어미 '-았-/-었-'이 중복된 '-았었-/-었었-'은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을 때 쓰이는군.
- ③ ㉢를 보니, 선어말 어미 '-겠-'과 함께 쓰인 '-었-'은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상황을 추측할 때에도 쓰일 수 있군.
- ④ ㉣를 보니,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는-/-니-'은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에도 쓰일 수 있군.
- ⑤ ㉤를 보니,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니-'은 어간이 형용사이면 '-니', 어간이 동사이면 '-는'이 쓰이는군.

05.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15세기 국어의 특징
 ㉠ 주격 조사가 표기상 드러나지 않기도 하였다.
 ㉡ 연철 표기(이어적기)를 하였다.
 ㉢ '모/무'로 끝나는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하면 체언의 끝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새로 생기기도 하였다.
 ㉣ 조사나 어미의 형태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사용되었다.

(나)
 불휘(불휘) 기픈(깊-+ -은) 남근(나모+은)
 부루매(부름+애) 아니 월씨 꽃 도쿄 여름(열-+ -음) 하느니.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 ① ㉠을 보니, '불휘'는 주격 조사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을 보니, '기픈'은 연철 표기가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③ ㉢을 보니, '남근'은 '모'로 끝나는 체언과 주격 조사 '은'이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을 보니, '부루매'에서 '애'는 모음 조화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⑤ ㉤을 보니, '여름'은 어근에 명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명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빠른 정답 찾기	01	02	03	04	05
	③	⑤	③	②	⑤

▶ 01 ③

정답풀이

'지구가 돌다.'와 '주희가 운동장을 돌다.'의 '돌다'는 모두 '움직임'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지구가 돌다.'의 '돌다'는 주어만 필요로 하는 자동사이고, '주희가 운동장을 돌다.'의 '돌다'는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에 해당하지만, 전자와 후자 모두 '돌다'의 품사는 동사이다.

▶ 이 선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자료>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단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휘적 의미가 아니라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로 나누어지는 부류(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갈래)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따라서 '지구가 돌다.'와 '주희가 운동장을 돌다.'에서 쓰인 '돌다'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해!!

오답풀이

- ① <대화 2>를 통해 '밝다'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인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지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이 밝다.'의 '밝다'는 '불빛 따위가 환하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형용사이고, '날이 밝는다.'의 '밝다'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라는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동사이다. 따라서 '밝다'는 의미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자료>에서 조사는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고 했다. 따라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가', '를'은 조사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품사로 묶을 수 있다.
- ④ '철수가 밥을 먹다.'에서 '철수'와 '밥'은 형태가 변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며, 의미적으로는 사람, 사물, 장소, 상태 등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명사로 묶을 수 있다. 그런데 '먹다'는 '먹고, 먹으니, 먹는'처럼 형태가 변하고,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며, 의미적으로는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동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사인 '철수'와 '밥'은 동사인 '먹다'와 구분된다.
- ⑤ '나, 사과, 하나'는 각각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는 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며 명사, 대명사, 수사에 해당하는데 이는 의미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한 것이다. 이는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모두 불변어에,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모두 체언에 해당하므로, '나, 사과, 하나'는 형태와 기능을 기준으로 품사를 구분할 수 없다.

👉 문법 개념 탐기

- **품사**: 단어를 문법적 성질(형태, 기능, 의미)의 공통성에 따라 나눈 갈래
 - **형태**: 단어의 형태 변화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뉨
 - **기능**: 한 단어가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들과 맺는 문법적인 관계에 따라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으로 나뉨
 - **의미**: 단어들이 분류된 갈래 전체의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로 나뉨

▶ 02 ⑤

정답풀이

㉔의 '한바탕'은 격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며, 서술어 '웃었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명사가 아닌 부사에 해당한다.

▶ <보기 1>을 참고하면 명사는 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고 했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 그리고 뒷글에서 부사 '매우'에 대한 설명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고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를 꾸민다고 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한바탕'도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품사를 판단해 볼 수 있겠지?

오답풀이

- ① ㉔의 '오늘'은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했지만 형태는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 서술어로 기능하는 명사이다.
- ▶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속하지만, 국어의 서술격 조사 '이다'는 다른 조사들과 달리 마치 용언처럼 활용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 따라서 '오늘 이니?'에서 활용형이 쓰인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자체는 활용하지 않아 선지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이져! 참고로 체언이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면 문장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자!
- ② ㉔의 '새'는 격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며, 체언인 '웃'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명사가 아닌 관형사에 해당한다.
- ③ ㉔의 '만큼'은 '먹고 싶은'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지만, 격 조사가 결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먹고 싶은 만큼을 먹어야'와 같이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만큼', '것', '뿐' 등은 문장에서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로 이들을 의존 명사라 한다.
- ④ ㉔의 '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 뒤에 오는 구체적인 지시 대상인 '분'을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어로 품사는 관형사에 해당한다. 또한 ㉔에서 관형어 '훌륭한'은 '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체언인 '분'을 수식한 것이다. 따라서 ㉔의 '이'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문장에서 주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명사가 아니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문법 개념 탐기

-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 **대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 가리키는 말
-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말
- **관형사**: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뜻을 꾸며주는 말
- **부사**: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꾸며주는 말
- **감탄사**: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말
- **조사**: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격 조사)하거나 의미를 추가(보조사)하는 말
- **동사**: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학습 Check 1회 2회 3회

문항	개념 확인	일면 Che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나의 책 Check! PAGE	선지나 <보기>를 활용하여 문법을 다지자! ● 선지나 <보기>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여, 내가 몰랐거나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01	자동사 타동사 품사 분류 기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2	불변어 가변어 체언 수식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3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ㅎ' 탈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4	서술절로 안긴문장 명사절로 안긴문장 관형절로 안긴문장 부사절로 안긴문장 인용절로 안긴문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5	중의성 여취적 중의성 문장의 구조적 중의성 상황 맥락에 의한 중의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1
주
차
- 2
- 3
- 4

W E E K

2

실전 대비 모의고사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어는 짜임새에 따라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나뉜다. 합성어와 파생어는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는데, 단어 형성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결합되는 구성 요소에 접사가 있으면 파생어로 본다. 파생어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닌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가령, 동사 '얼다'의 어근 '얼-'에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파생어가 된 '얼음'은 명사가 된다. 또한 일부 파생어가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일 때, 그 어근이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일 때와는 달리 문장의 구조가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다.'에서 '안기다'는 '안다'의 어근 '안-'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파생어인데, '안기다'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의 구조는 '엄마가 아기를 안다.'에서처럼 '안다'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 구조와 차이가 있다. 또한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약도 있다. 사동이나 피동 접미사와 달리 명사 파생 접미사 '-이'는 '놀이', '먹이' 등과 같이 어근이 자음으로 끝날 때에만 결합하며, 어근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결합이 허용되거나 결합에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척도를 나타내는 접미사 '-이'는 '길이', '높이'와 같은 파생어를 만들 수 있지만, 이와 대응되는 '*짧이', '*낮이'는 만들 수 없다.

한편,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중에서 '-(으)ㄴ'은 명사형 어미 '-(으)ㄴ'과 형태가 동일하다. 이때 종성이 'ㄹ'인 어간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될 때에는 '만들'과 같이 어간의 종성 'ㄹ' 옆에 '-ㄴ'의 형태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ㄷ'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단어의 경우에는 어간의 다음 음절에 명사형 어미가 '-음'의 형태로 결합한다. 이는 어간의 받침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교체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0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 헛웃음
- ㉡ 정답다
- ㉢ 가슴앓이
- ㉣ 도둑이 잡히다.
- ㉤ 바지의 길이를 재다.

- ① ㉠: 파생어 '웃음'에 접두사 '헛-'이 결합하여 다시 파생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코웃음'과 차이가 있다.
- ② ㉡: 명사인 어근이 접미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가위질'과 차이가 있다.
- ③ ㉢: 자음으로 끝난 어간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파생 명사 '구이'와 차이가 있다.
- ④ ㉣: '잡히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잡다'와 차이가 있다.
- ⑤ ㉤: '길이'에 대응하는 '*짧이'를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길이' 보전하다.'의 '길이'와 품사상 차이가 있다.

02. <보기>는 [A]를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과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책을 만들'에서 '만들'은 ㉠'ㄹ'로 끝나는 어간에 명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것이고, '빠르게 걸음'에서 '걸음'은 '걷다'가 ㉡'ㄷ' 불규칙 활용을 하여 어간 받침 'ㄷ'이 'ㄹ'로 바뀐 것으로,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사형 어미 '-(으)ㄴ'과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은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나 형용사는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학 생: 이제 왜 '만들'과 '걸음'에서 명사형 어미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결합했는지 알겠어요.

- ① ㉠: 만찬회를 베풀.
- ㉡: 가슴에 이 름표를 달음.
- ② ㉠: 나의 행복한 삶.
- ㉡: 아기가 젖병을 물음.
- ③ ㉠: 머리를 흔들.
- ㉡: 음악을 크게 들음.
- ④ ㉠: 얼음이 꽁꽁 얼.
- ㉡: 뼈꾸기가 슬피 울음.
- ⑤ ㉠: 수업 시간에 잠깐 쉼.
- ㉡: 가슴 속에 비밀을 묻음.

▶ 03 ②

정답풀이

①에서 '겉모습'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겉모습'이 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 [건모습]으로 발음된다. 이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는 모두 교체에 해당한다. '깎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기' 'ㄱ'으로 바뀌어 '깎는'이 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 [깡는]으로 발음되므로 ①이 일어나는 예에 해당한다. ㉠에서 '물약'은 'ㄴ' 첨가가 일어나 '물낙'이 된 후 유음화가 일어나 [물락]으로 발음된다. 이때 'ㄴ' 첨가는 음운 변동의 유형 중 첨가에 해당하고, 유음화는 교체에 해당하므로 각기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붙여우'는 'ㄴ' 첨가가 일어나 '붙녀우'가 된 후 유음화가 일어나 [붙려우]로 발음되므로, ㉡이 일어나는 예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 ① '읽다'는 탈락에 해당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익다'가 된 후 교체에 해당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익따]로 발음된다. '홀이불'은 교체에 해당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받침 'ㅍ'이 'ㄷ'으로 바뀌고, 첨가에 해당하는 'ㄴ' 첨가가 일어나 '홀니불'이 된 후, 교체에 해당하는 비음화가 일어나 [홀니불]로 발음된다.
- ③ '엎다'는 교체에 해당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업다'가 되고, 교체에 해당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업따]로 발음된다. '값도'는 탈락에 해당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갑도]가 된 후 교체에 해당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갑또]로 발음된다.
- ④ '물엿'은 교체에 해당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받침 'ㅅ'이 'ㄷ'으로 바뀌고, 첨가에 해당하는 'ㄴ' 첨가가 일어나 '물녘'이 된 후, 교체에 해당하는 유음화가 일어나 [물렬]으로 발음된다. '영업용'은 첨가에 해당하는 'ㄴ' 첨가가 일어나 '영업농'이 된 후 교체에 해당하는 비음화가 일어나 [영업농]으로 발음된다.
- ⑤ '숯는'은 교체에 해당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숯는'이 된 후, 교체에 해당하는 비음화가 일어나 [숯는]으로 발음된다. '달는'은 탈락에 해당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달는'이 된 후, 교체에 해당하는 유음화가 일어나 [달른]으로 발음된다.

👉 문법 개념 탐기

- **교체**: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등이 해당함
 예) 늪[늑], 앞마당[암마당], 선릉[설릉], 줄넘기[줄럼끼], 끝이[꼬치]
- **탈락**: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변동으로, 자음군 단순화, 'ㄹ' 탈락, 'ㅎ' 탈락, 'ㄴ' 탈락, 'ㅈ/ㅊ' 탈락 등이 해당함
- **경받침을 받음할 때 적용되는 규칙인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하나의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것은 교체이고, 두 개의 자음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탈락에 해당돼!
- **첨가**: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음운 변동으로, 'ㄴ' 첨가, 반모음 첨가 등이 해당함
 예) 물엿[물렬], 되어[되어/되여]
- **축약**: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음운 변동으로, 거센소리 되기(자음 축약)가 대표적인
 예) 날고[나코]

▶ 04 ⑤

정답풀이

'기계가 제대로 돌다.'에서 '돌다'는 주어만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로 쓰였고, '그가 자전거로 모퉁이를 돌다.'에서 '돌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였다.

❶ 하나의 단어로 하더라도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르게 쓰이기도 해!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 즉 다의어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지기도 하니까, 각각의 문장 성분을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오답풀이

- ① 능동문 '고양이가 쥐를 잡다.'에서 '잡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였고, 피동문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다.'에서 '잡히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였다.
- ② 주동문 '동생이 책을 읽다.'에서 '읽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였고, 사동문 '엄마가 동생에게 책을 읽히다.'에서 '읽히다'는 주어와 목적어 외에도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로 쓰였다.
- ③ '햇살이 눈부시게 밝다.'에서 '밝다'는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로 쓰였고, '그는 세상 물정에 밝다.'에서 '밝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였다.
- ④ '건강이 나빠져 일을 놓다.'에서 '놓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였고, '책상 위에 책 한 권을 놓다.'에서 '놓다'는 주어와 목적어 외에도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로 쓰였다.

👉 문법 개념 탐기

-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에 따라 문장에서 필요로 하는 성분이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함. 서술어의 자릿수는 용언의 어휘적 특성에 따라 달라짐
- **서술어의 자릿수를 파악할 때는 문장에서 그 성분을 생략해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은지 따져보면 돼!**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생략할 수 있는 부속 성분이지만, 서술어에 따라서는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 이처럼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지?

학습 Check 1회 2회 3회

문항	개념 확인	일면 Che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나의 책 Check! PAGE	선지나 <보기>를 활용하여 문법을 다지자! ● 선지나 <보기>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여, 내가 몰랐거나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01	직접 구성 요소 분석 합성어 파생어 명사 파생 접미사 형용사 파생 접미사 피동 접미사 부사 파생 접미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2	명사형 어미 명사 파생 접미사 'ㄷ' 불규칙 활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3	교체 탈락 첨가 축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4	서술어의 자릿수 필수적 부사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5	'ㅎ' 종성 체언 무정 명사 / 유정 명사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 여두 자음군 이어적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1
- 2
주
차
- 3
- 4



'문법노트 PLUS' 완성하기

문법백제 모의고사 풀이와 '문법 개념 PLUS' 정리를 마쳤다면, 이제 **'문법노트 PLUS'**를 완성할 시간이에요! 파트별로 제시된 **문법 핵심 정리**를 보며 전체적인 국어 문법의 체계를 익히고, 각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를 확인한 후 틀린 문제나 헛갈렸던 문제를 꼼꼼하게 정리하면 **나만의 오답 노트**가 완성된답니다.

'문법노트 PLUS'는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게 별책으로 구성하였고, 본책의 모의고사 120 문제를 모두 노트에 다시 한번 실어 두어 효율적으로 오답 노트를 정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책 한 권을 끝내면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나만의 문법노트가 완성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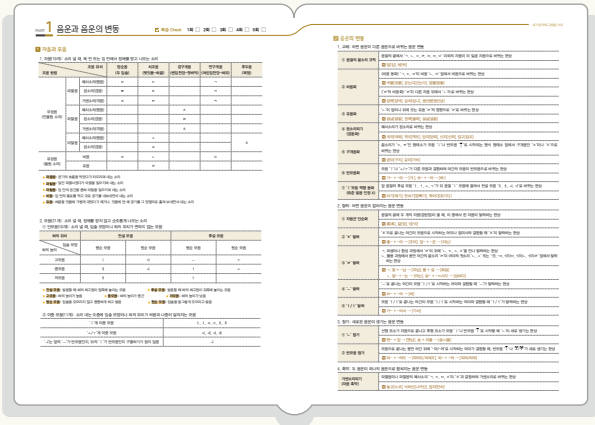
How to use & Contents

그럼 지금부터 '문법노트 PLUS'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STEP 1

파트별로 문법 핵심 내용 정리하기



STEP 2

본책 모의고사 정·오답 체크하기

시험명	본책 PAGE	체크하기	시험명	본책 PAGE	체크하기
01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1번	P.012	✓ △ X	13회차 고난도 확장 모의고사 02번	P.091	○ X X
01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2번	P.012	✓ △ X	14회차 고난도 확장 모의고사 03번	P.099	✓ △ X
02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3번	P.019	✓ △ X	16회차 고난도 확장 모의고사 03번	P.115	✓ △ X
03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1번	P.024	○ X X	17회차 고난도 확장 모의고사 03번	P.123	○ X X
04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3번	P.031	○ X X	18회차 고난도 확장 모의고사 03번	P.131	○ X X
05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1번	P.042	✓ △ X	19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1번	P.140	✓ △ X
07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03번	P.051	○ X X	21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1번	P.154	○ X X
09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03번	P.057	✓ △ X	22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2번	P.160	○ X X
09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03번	P.063	✓ △ X	23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1번	P.168	○ X X
11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03번	P.069	○ X X	24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1번	P.176	○ △ X
11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03번	P.075	✓ △ X			
13회차 고난도 확장 모의고사 01번	P.090	✓ △ X			

○ : 개념도 정확히 알고, 정답도 맞힌 경우 △ : 개념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답도 맞힌 경우 X : 개념도 정확하게 모르고, 정답도 틀린 경우

STEP 3

나만의 문법 오답 노트 만들기

07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03번

03. (보기)의 ㉠과 ㉡이 일어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속삭임으로 구분된다. 이때 한 단어에 동일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한 번 또는 여러 번 일어나도 되고, 두 개 이상의 각기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도 된다. 예를 들어, '인간'을 '인간'으로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나지만, '말'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각기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난다.

㉠ 앞다(어미) ㉡ 홀이(문조사)

㉢ 죽는다(동사) ㉣ 복이(부사)

㉤ 앞다(어미) ㉥ 굶다(동사)

㉦ 몸짓(동명) ㉧ 영감(명사)

㉨ 솟는다(동사) ㉩ 달(명사)

★ 반드시 읽고 기억하기!

- 붙임 : 붙임(‘㉠’ 앞) - 붙임(‘㉡’) - 붙임(‘㉢’) - 붙임(‘㉣’) - 붙임(‘㉤’) - 붙임(‘㉥’) - 붙임(‘㉦’) - 붙임(‘㉧’) - 붙임(‘㉨’) - 붙임(‘㉩')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속삭임으로 구분된다. 이때 한 단어에 동일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한 번 또는 여러 번 일어나도 되고, 두 개 이상의 각기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도 된다. 예를 들어, '인간'을 '인간'으로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나지만, '말'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각기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난다.

★ 반드시 다시 보아야 할 문제를 체크하고, 위 예시를 참고하여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5주차	별책 문법노트 PLUS	학습 내용	페이지	학습 체크		
				1회	2회	3회
요일		학습 내용				
월		1 음운과 음운의 변동	P.00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		2 형태소와 단어	P.02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		3 문장의 이해	P.04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목		4 문법 요소	P.06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금		5 의미 & 국어의 역사	P.07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ART

1

음운과 음운의 변동

1 자음과 모음

1. 자음(19개): 소리 낼 때, 목 안 또는 입 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양순음 (두 입술)	치조음 (윗잇몸-혀끝)	경구개음 (센입천장-혓바닥)	연구개음 (여린입천장-혀뒤)	후두음 (목청)
무성음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평음)	ㅍ	ㅊ		ㅋ	
		된소리(경음)	ㅂ	ㅃ		ㆁ	
		거센소리(격음)	ㅍ	ㅊ		ㅋ	
	파찰음	예사소리(평음)			ㅈ		
		된소리(경음)			ㅉ		
		거센소리(격음)			ㅊ		
	마찰음	예사소리(평음)		ㅅ			ㅎ
		된소리(경음)		ㅆ			
	유성음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 파열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
- ★ 파찰음: 일단 파열시켰다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 ★ 마찰음: 입 안의 공간을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 ★ 비음: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 ★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 보내면서 내는 소리

2. 모음(21개): 소리 낼 때,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

① 단모음(10개): 소리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

혀의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 모양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혀의 높이					
고모음		ㅣ	ㅍ	ㅡ	ㅈ
중모음		ㅔ	ㅆ	ㅓ	ㅊ
저모음		ㅐ		ㅑ	

- ★ 전설 모음: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놓이는 모음
- ★ 후설 모음: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놓이는 모음
- ★ 고모음: 혀의 높이가 높음
- ★ 중모음: 혀의 높이가 중간
- ★ 저모음: 혀의 높이가 낮음
- ★ 평순 모음: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평평하게 하고 발음
- ★ 원순 모음: 입술을 둥그렇게 오므리고 발음

② 이중 모음(11개): 소리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모음

'ㅣ'계 이중 모음	ㅑ, ㅕ, ㅗ, ㅛ, ㅜ, ㅠ
'ㅓ/ㅑ'계 이중 모음	ㅓ, ㅖ, ㅗ, ㅛ
'ㄴ'은 앞의 'ㅡ'가 반모음인지, 뒤의 'ㅣ'가 반모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음	ㄴ

음운과 음운의 변동 나만의 오답 노트 정리

시험명	본책 PAGE	체크하기
01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1번	P.012	○ △ ×
01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2번	P.012	○ △ ×
02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3번	P.019	○ △ ×
03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1번	P.024	○ △ ×
04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3번	P.031	○ △ ×
06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1번	P.042	○ △ ×
06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2번	P.042	○ △ ×
07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03번	P.051	○ △ ×
08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03번	P.057	○ △ ×
09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03번	P.063	○ △ ×
10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03번	P.069	○ △ ×
11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03번	P.075	○ △ ×

시험명	본책 PAGE	체크하기
13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01번	P.090	○ △ ×
13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02번	P.091	○ △ ×
14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03번	P.099	○ △ ×
16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03번	P.115	○ △ ×
17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03번	P.123	○ △ ×
18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03번	P.131	○ △ ×
19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1번	P.140	○ △ ×
21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1번	P.154	○ △ ×
22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1번	P.160	○ △ ×
22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2번	P.160	○ △ ×
23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1번	P.168	○ △ ×
24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1번	P.176	○ △ ×

○ : 개념도 명확히 알고, 정답도 맞힌 경우 △ : 개념은 명확하게 모르지만, 정답은 맞힌 경우 × : 개념도 명확하게 모르고, 정답도 틀린 경우

01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1번

→ 본책 P.012 지문 참고하기

0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밭헤[밭켜]에서 '밭'과 '켜'는 각각 하나의 음절에 해당한다.
- ② '향양'은 이중 모음에 자음 1개가 붙은 '중성 + 종성'의 음절 구성 방식에 해당한다.
- ③ '가져[가저]에서 두 음절은 모두 초성에 자음 1개와 중성에 단모음 1개로 이루어져 있다.
- ④ '건너- + -어서에서 한 음절이 줄어 '건너서[건너서]가 된 것은 모음이 탈락한 것과 관련된다.
- ⑤ '사이에서 한 음절이 줄어 '새[새]가 된 것은 두 단모음이 하나의 이중 모음으로 축약된 것과 관련된다.

01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2번

→ **분석 P.012 지문 참고하기**

02. ㉠과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보기>와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 (가) 최소 대립쌍이란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한다. 그런데 자음 'ㅇ'과는 달리 'ㅎ'은 음절의 초성에만 올 수 있고, 음절의 종성에는 올 수 없다.
- (나) 음절의 종성에는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으므로, 겹받침의 경우에는 자음군 중 하나가 탈락한다.

- ① '영[영]'은 ㉠에 해당하는 예로, (가)에 따라 '형[형]'과 최소 대립쌍을 이룬다.
- ② '종이[종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가)에 따라 '종어[조어]'와 달리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발음된다.
- ③ '닭는 → [당닐]'은 ㉡에 해당하는 예로,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울지 → [울지]'는 ㉡에 해당하는 예로,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⑤ '없다 → [업따]'는 ㉡에 해당하는 예로,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02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3번

03. <보기>의 '탐구 목표'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탐구 목표]

국어의 음절 종성에서는 자음을 두 개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겹받침은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거나, 겹받침 중 뒤의 자음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된다. 또한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후 연음되기도 하고, 다른 음운 변동이 함께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겹받침 중에서도 'ㅎ'으로 끝나는 음언의 어간은 연음이 일어나지 않고, 'ㅎ'이 탈락하거나 다른 자음과 축약된다. [자료]를 보고 국어의 겹받침에 적용되는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 설명해 보자.

[자료]

(가)	어덜과[어덜과], 울논[음논], 앓논[안논]
(나)	어덜이[어덜비], 울어[울미], 앓아세[안자서]
(다)	값있는[기빈는], 흙일[흙닐]
(라)	읽은[이른], 싫어도[시러도]
(마)	짚지[짚찌], 맑게[말게], 달논[달른]

[탐구 내용]

- ① (가)와 (나)를 비교해 보니,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군.
- ② (나)와 (다)를 비교해 보니,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군.
- ③ (다)와 (마)를 비교해 보니, 'ㄹ'을 포함한 겹받침이 자음군 단순화를 겪으면 앞 자음인 'ㄹ'만 남고 뒤 자음이 탈락하는군.
- ④ (가)와 (마)를 비교해 보니, 겹받침이 있을 때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음운 변동이 함께 일어나기도 하는군.
- ⑤ (나)와 (라)를 비교해 보니, 'ㅎ'으로 끝나는 겹받침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더라도 'ㅎ'이 연음되지 않고 탈락하는군.